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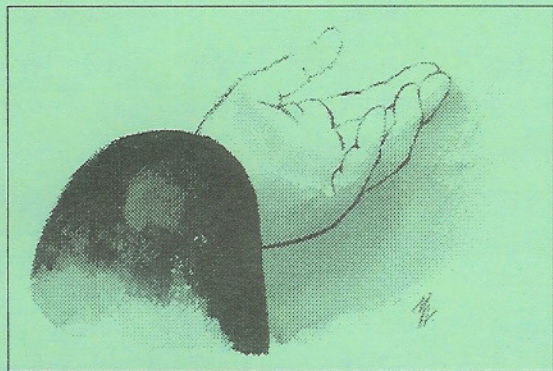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목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제29권 47호(나해) 2009 · 10 · 18

[묵상]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명을 받아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내며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우리의 전교가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활동에 앞서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와 일치될 이루셨고 아버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선포만 할 뿐
나 자신은 예수님과 대화도 일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지 나를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란 내가 하느님과 먼저 일치하는 것
즉 복음 선포 대상 제 1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전교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이 전교대상일지도...(桓)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정순봉 율리아나, 안정현 바오로, 엄은섭 도로테오
	(생)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송영주 엘리사벳, 장기증자들, 박상대 마르코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신임순 안나, 이금순 마리아, 한병열 토마스, 이상현 베드로,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김길재 안드레아, 이철우, 김시형 시릴로, 이은완 야고보
	(생)최율리아나, 김우용 시몬, 최현찬 안드레아 & 태순 도로테아, 변제영 제프리, 오창애 안나, 김성택 프란치스코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만백성이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정의로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세상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오곡백과가 땅에서 낫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십시오.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만방이 당신을 두려게 하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음 ◎알렐루야.
환호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64	188
봉헌	264	233,259
성체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106,295
파견	372	332

1.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

▶ 생명에 대한 폭력의 기원

7)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라고 만드셨으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래가 살게 마련이다.……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셨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이니 악마에게 편드는 자들이 죽음을 맛볼 것이다."(지혜 1,13-14; 2,23-24)

충만하고 완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이 창조되던 태초에 선포된 생명의 복음은(창세 2,7; 지혜 9,2-3 참조)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존존재 위에 무의미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죽음의 고통스런 체험과 대조를 이룬다. 죽음은 악마의 시기와(창세 3,1.4-5 참조) 첫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죽음은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그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 "들여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창세 4,8)

이 첫 번째 살인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창세기의 한 지면 속에 독특한 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곧 그것은 인류 역사의 책속에, 빈번하게, 변함없이 더욱 악화되어 가면서, 날마다 되풀이하여 쓰이고 있는 지면이다.

원시적인 구조와 극도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 성서 이야기를 함께 다시 읽어보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있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꺾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계속>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그러한 보편적 구원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세상 안으로 파견하시며 당신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무상으로 나누어주게된 구원의 기쁨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는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선교사명이야말로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자 명령’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는 하지만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본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의 평화조약 체결 또는 승전 선포나 새로운 임금의 등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기쁨’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습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사회적,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바로 그 복음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 사건을 지칭하기 위해 갖다 쓰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사건을, 구원의 기쁨을 살게 하는 더할나위 없는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구원관은 바로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로 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내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아직도 이기적인 장벽을 헐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선교 사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상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그분을 전 실존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실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구체적인 확신 없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을뿐더러 고통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희망과 격려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살며 전해야 할 신앙인들이 참으로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혹시라도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신덕레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문재원 클로틸다	황지영 안젤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연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비/카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장미정 로사	김교복 레오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금자 데레사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19일
성전 봉헌
7주년

10월19일(월)은 백삼위 한인성당 성전봉헌 7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숙원사업이던 성전 및 회관 공사가 완료된 지난 2002년 10월19일, LA대교구 로저 마호니 추기경님 주례로 성전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교하자”는 신앙지침을 따라 오늘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봉헌기념일을 맞아 국/내외 은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예비자(부활 세례반) 환영식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10월은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비자 모집을 위해 전신자들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영식 : 오늘 주일(18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10월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층 교리실

◆ 파푸아 뉴기니 아동을 위한 도서 기증 오늘 마감합니다.

- 목적 : 문명과 동떨어진 밀림속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에게 책을 보내줍니다.
- 도서기준 : 유치원~초등학교 수준의 만화, 동화 등 영어책
- 수집장소 : 천교장 앞쪽에 Box 비치
- 문의 :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 백삼위 골프 토너먼트

- 일시 : 10월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로스 세라노스 컨트리클럽(15656 Yoba Av. Chino Hills, CA 91709)
- 문의 : 정충로 골프회장 ☎(310)991-6966

◆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 본당 방문, 미사 집전하십니다.

백삼위 성당이 속한 LA 대교구 샌피드로 지역의 주교님으로 계시다 10월부터 교구청 총대리 주교님으로 옮겨가신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께서 본당을 방문,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 일시 : 10월25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M.E. 제정 '사제의 달' 행사

10월은 M.E.가 정한 '사제의 달'입니다. 백삼위 본당에 새로 부임하신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을 모시고 '첫만남 BBQ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M.E.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Sharing은 이번 행사로 대체합니다.

- 일시 : 10월25일(주일) 오후6시, 강당
- 연락 : 본당 M.E. 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희연 루시아 ☎(213)458-3356

◆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신종 Flu 백신이 아닙니다.)

한경숙 안나(PHN, NP 자격) 자매가 LA카운티 보건 면역당국에 요청하여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도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우선 1차분 100명 선착순)

- 일시 : 10월 25일(주일) 낮 미사 후, 천교장
- 대상 : 노약자 우선, 계란 흰자위 알러지가 없고, 감기를 앓고 있지 않은 분.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27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 회장 ☎(310)518-1736
김금자 테레사 총무 ☎(310)539-9526

◆ 컴퓨터 무료 교육

- 내용 : 컴퓨터 기초(인터넷 등)
- 일시 : 10월20,22,24일(화,목,토) 오전 10시~11시30분
- 교육내용 : 워드, 음악, 사진 등 총복습
- 문의 : 권진열 피데스 요셉회 총무 ☎(310)800-3592

◆ 성체신심 세미나 CD 판매

지난 8월26일~29일까지 본당에서 현요안 요한 신부의 지도로 개최됐던 성체신심 세미나의 CD가 완성됐습니다. \$20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8일(주일) : 토런스 서1반(맛있는 국밥 \$3)
- 10월25일(주일) : 토런스 남1반(소고기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인모	권오상	김교복	김기석	김원모	김원호
	김원호	김윤진	김정희	모은기	민봉식	민소예	박인식
	박인식	방정복	배기엽	안태갑	오수인	오진	이근모
	오진희	이근모	이명선	이명자	이상규	이용식	이효세
	이효세	장수창	장영진	정규숙	정명모	정열모	장수창
	정훈모	채양석	최기남	최미열	최상만	최의수	최기남
	최이원	최진수	한혜숙	황지영	송마이클		최미열
	한길선례			합계 : \$4,710			황지영
미사헌금	\$3,011.50						
성전헌금	강덕희	권오상	김교복	김기석	김원모	김원호	
	김윤진	김정희	모은기	민봉식	민소예	박인식	
	방정복	배기엽	안태갑	오수인	오진희	이근모	
	이명선	이명자	이상규	이용식	이효세	장수창	
	정규숙	정열모	정훈모	채양석	최기남	최미열	
	최의수	최이원	최진수	한혜숙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3,050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중고등부 피정 일정표

- 일시 : 10월23일(금) 오후 6시30분 ~ 11시30분, 성당
 - 대상 : 7학년~12학년(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됨)
 - 참가비: 없음
- 당일 오후 6시30분 접수와 함께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6:30-7:00pm 게임
 - 7:30-8:50pm 보물찾기 (Bible Clue)
 - 8:50-9:10pm 찬양
 - 9:10-9:40pm 강의(주제 : 다른사람을 대하는 방법)
강사 : Daniel Sheen 또는 Fr.Sunwoo
 - 9:40-10:30pm Bonfire/Snack
 - 10:30-11:10pm 성경퀴즈
 - 11:10-11:30pm 찬양
 - 11:30pm Parents pick-up
- 피정 신청서와 일정안내는 오늘 주일(18일) 학생들을 통하여 배부됩니다. 부모님께서 꼭 서명하시어 금요일에 함께 보내주시거나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 아네스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유빌라테 제2회 성음악 캠프(LA 국악 성가 배움터)

- 일시 : 10월24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장소 : LA 성삼 한인천주교회
- 강사 : 강수근 바오로 마리아 신부 (예수고난회)
- 참가비 : \$40(중식, 석식, 악보집 포함)
- 문의 : 단장 이항 요셉 ☎(626)216-4555

◆ 제2회 남가주 청년성령쇄신대회

- 일시 : 11월7일(토) 오전 8시~오후 6시
 - 주제 :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갈라5:16)
 - 강사 : 이유진 신부 (성도마스 보좌신부), Mrs. 페티 맨스펠드
(듀케인대 성령기도회 창설멤버), Minh Bui 신부 (OC교
구 성령채신지도신부)
 - 장소 : 성도마스 한인천주교회
 - 문의 : 유필립 ☎(310)650-9058
- ▶ 남가주 한인 가톨릭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14일(토) 오후 2시
 - 장소 : 홀리크로스 묘지 (5835 W. Slauson Av.
Culver City, CA 90230)
 - 주관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달체 모임

10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양균 안나 518-3041 10/9(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정웅 요한 720-8240 10/31(토) 오후 7시
	3	신덕래 데레사 494-1390	신덕래 데레사 494-1390 10/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교복 레오 328-1817 10/10(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도마스&클라라 424-241-5988 10/16(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0/13(화) 오전 10시 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배난군 세레나 325-7733 10/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0/16(금) 오전 10시30분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신현정 루시아 213-503-6035 10/9(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오스테파노 352-4679 10/9(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병우 마리오 953-7903 10/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10/7(수)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오희종 마르코 377-0828 10/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영석 크리스토폴 377-7063 10/16(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0 10/13(화) 오전 10시30분, 성당

◎ 서병교 라파엘 형제의 ‘파푸아 뉴기니’ 선교 체험기 (5) ◎

역수 같은 장대비가 멈추고 날이 갠 다음날 신부님과 내가 마을을 오르내리는 길을 점검하던 중에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발견하였다. 급히 청년회 회장을 불러 최대한의 인원을 내일 아침까지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항상 걸어 다니기 때문에 산사태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즉,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한심한 생각에 화를 내며 호소하듯 이야기하였다. “며칠 전 나와 신부님이 산 아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부님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병든 노인 한분을 약 10명의 신자들이 들 것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약 6시간을 하산하여 내려가야지 한다고 하더라. 만약 당신의 부모가 아프게 되어 신부님의 차로 빨리 병원에 가게 되면 너희 부모는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인데, 당신들의 수고가 당신들의 부모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보수공사를 하자.”고 하였다. 말이 먹혔는지 즉시 그들은 8명의 청년부 신자들을 모집하였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누구도 공구와 점심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맨발과 맨손으로 와 있었다.

신부님과 나는 냉장고와 창고를 뒤져 점심식사를 위한 요기걸이를 찾았지만 대식구를 먹일 만큼의 음식은 없었다. 할 수 없이 창고에 있던 비스킷(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의 5장 PACK) 10봉지와 오렌지 주스 1.5리터짜리 2개를 가지고 갔다. 그들에게 이 정도의 분량은 점심식사로 충분한 것이었다. 그들은 맨발로 작업을 하였다. 정글 칼로 쓰러진 나무를 쳐서 길을 만들고, 패인 길을 삽으로 고르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돌을 주워 패인 곳을 매우고, 길 한쪽에 골을 파서 물받이 공사를 하였다. 대략 1.5km를 복구한 것이다. 작업 도중 신부님의 신호로 점심식사를 하는데, 비스킷 몇 개와 오렌지 주스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니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날씬한 몸매와 나의 살찐 몸매가 비교가 되어 내 자신의 풍요로웠던 생활들이 부끄럽고 미안하기만 했다. 그래서 내 점심식사 량의 일부분을 청년회 중 한 명인 ‘세바스찬’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이 맨발로 삽질을 하면서도 발바닥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피를 내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탄을 하였으며,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건강한 발을 주셨음에 감사드릴 뿐이었다.

일을 마친 후 청년회장(Nowrens)에게 민물장어를 먹고 싶은데 잡아 주기를 청하였더니, 온종일 일하여 피곤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망설임 없이 흔쾌히 승낙하며 동료 2명(Max Ulul, Nicodemus Kapor)과 함께 내일 아침 4시까지 잡아서 오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먹지도 않는 것이었지만 오로지 우리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음날 신부님과 나는 고추장 양념을 하여 잡아온 장어와 민물새우로 회식을 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며, 뜨거운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며칠 전 ‘십자가 행렬’을 하는 날 미사에서 보았던 광경이 다시금 떠올랐다. 70이 넘어 보이는 어느 노인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맨 앞줄에 도착했다. 굽어진 허리와 얼마나 곁었는지 모를 맨발, 언제 샤워를 했는지 모를 정리되지 않은 머리, 언제 세탁을 했는지 모를 누추한 옷(그래도 미사 때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함.), 기름기 하나 없이 쭈글쭈글한 이마와 피부, 그리고 허긋허긋한 턱 수염. 너무나 초라한 독거노인의 모습이였다. 그런데 관절염으로 추정되는 그의 불편한 한쪽 다리는 앉는 것조차 힘들게 하였다.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며 고통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는 서서히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나를 너무나 놀라게 하였다. 그 노인의 외모는 마치 예수님의 누추한 모습과 흡사하였으며, 그의 기도 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느님께 기도하시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노인이 그곳에서 내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누추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한정된 지면관계로 원거리 병자방문과 공소방문 등의 체험을 들려 드릴 수는 없지만 본당신부님의 배려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저의 선교 체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3주간의 파푸아 뉴기니 선교 체험 내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1)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끝)